

# 을지대 약술형논술

국어

# 목차

---

|                          |           |
|--------------------------|-----------|
| <b>2025학년도 1교시 (1세트)</b> | <b>4</b>  |
| 문항 1                     | 4         |
| 문항 2                     | 5         |
| 문항 3                     | 7         |
| 문항 4                     | 10        |
| 문항 5                     | 13        |
| 문항 6                     | 15        |
| 문항 7                     | 17        |
| <b>2025학년도 2교시 (2세트)</b> | <b>19</b> |
| 문항 1                     | 19        |
| 문항 2                     | 20        |
| 문항 3                     | 22        |
| 문항 4                     | 24        |
| 문항 5                     | 26        |
| 문항 6                     | 28        |
| 문항 7                     | 30        |
| <b>2025학년도 3교시 (3세트)</b> | <b>32</b> |
| 문항 1                     | 32        |
| 문항 2                     | 33        |
| 문항 3                     | 35        |
| 문항 4                     | 37        |
| 문항 5                     | 39        |
| 문항 6                     | 41        |
| 문항 7                     | 43        |
| <b>2026학년도 모의논술</b>      | <b>45</b> |
| 문항 1                     | 45        |
| 문항 2                     | 46        |
| 문항 3                     | 48        |
| 문항 4                     | 50        |
| 문항 5                     | 52        |
| 문항 6                     | 53        |
| 문항 7                     | 55        |
| <b>2025학년도 모의논술</b>      | <b>57</b> |
| 문항 1                     | 57        |
| 문항 2                     | 59        |

|            |    |
|------------|----|
| 문항 3 ..... | 61 |
| 문항 4 ..... | 62 |



문항 2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는 과학 철학의 지각 변동이라 할 정도로 과학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쿤은 과학자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과학적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과학의 개념 및 이론 변화를 설명하였다. 그가 사용한 패러다임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에 일단(一團)의 과학자 공동체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된 이론적 틀이나 체계, 개념의 집합체, 과학적 성취들을 가리킨다. 쿤은 이 공동체가 연구의 주체와 방법, 기준, 세계관이나 가치관, 신념 등을 공유하며, 이 공동체 안의 과학자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패러다임 안에서 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고, 이를 정상과학이라고 했다. 만일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은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이 패러다임을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변칙적인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 과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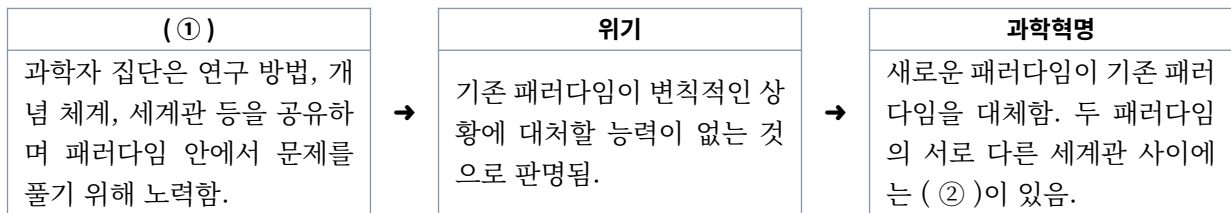
쿤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이 합리적인 체계를 가진 학문이 아님을 드러냈고, 과학이 귀납적이라는 생각을 뒤바꿨다. 쿤은 과학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 패러다임에 따라 과학적 관찰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 사례가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수용한 과학자가 망원경으로 달을 행성이 아니라 위성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는 친숙한 도구를 가지고서 과거에 이미 들여다본 적 있는 세계를 들여다보면서도 새롭고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전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관찰이 이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관찰을 결정한다는 것이며, 세계관이 변화한 과학자는 세계를 다르게 본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쿤은 과학혁명을 전후해서 상이한 패러다임 안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관찰이 서로 다르고 동일한 용어도 범주와 개념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상이한 패러다임을 하나하나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언어, 다시 말하면 이론 중립적인 관찰 언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동일한 용어라고 하더라도 해당 용어가 세계와 관련 맺는 방식이 변화된다. 이로 인해 용어가 지시하는 의미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도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에 모든 패러다임이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객관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쿤은 이렇게 과학적 혁명을 전후해서 두 이론이 가지는 방법론적 차원, 개념과 의미론적 차원,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다른 것을 통약불가능성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그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속하는 과학자들끼리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은 동문서답이 된다고 보았다.

쿤이 언급한 과학혁명의 과정, 통약불가능성은 과학자 집단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 둘도 아닌 단 하나의 이론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쿤은 단 하나의 이론 선택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선택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과학 철학자들에 의해 열거되는 정확성, 간결성 등의 가치에 호소하는 설득 과정을 통해 이론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보기>는 쿤이 주장한 과학혁명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①, ②에 해당하는 개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 ■ 예시 답안

### 정답

- ① 정상과학      ② 통약불가능성

### 풀이

- ① 1문단에, 연구의 주체와 방법, 기준, 세계관이나 가치관, 신념 등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과학자 공동체 안에서 과학자들이 제기되는 문제들을 그 패러다임 안에서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를 정상과학이라고 한다는 점이 서술되어 있다.
- ② 3문단에, 과학적 혁명을 전후해서 패러다임이 다른 두 이론이 가지는 방법론적 차원, 개념과 의미론적 차원,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다른 것을 ‘통약불가능성’이라고 한다는 점이 서술되어 있다.

## ■ 채점 기준

①, ②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정상과학   | 5점 |
| ②     | 통약불가능성 | 5점 |

### 문항 3

「3」 다음 글을 읽고 <보기>의 빈칸에 적절한 답을 쓰시오.

“해가 서쪽에서 뜨졌구나?”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

“……멋허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으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꿇 짓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 선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윤 직원 영감은 마치 목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 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조글트리고 앉습니다.

“거, 웬 소리냐? 으응? 으응?…… 거 웬 소리여? 으응? 으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 주사는 조기 호주머니에서 간밤의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 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쓰윽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 주사네 서사 민 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으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 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地陷)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 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侵擄)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라니? 으응?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咆哮)를 합니다.

“……으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으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여?”

“허긴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에 나왔을 때버튼 그런 기미가 좀 뵈긴 했어요!”

“그러머넌 참말이구나! 그러머넌 참말이여,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릅니다.

“……그런 처 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댕다 경찰서에 잡혀? 으응?…… 오사육시를 헐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 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오죽이나…….”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 채만식, 「태평천하」

#### <보기>

이 소설에는 일제강점기 서울의 어느 대지주 집안을 배경으로 식민지 경제 구조에 편승해 교묘하게 재산을 축적한 인물 ‘윤 직원’이 등장한다. 소설은 개인과 가족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윤 직원의 모습을 통해 암울한 민족의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 좇는 인물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위 장면에서 윤 직원 집안의 몰락을 야기하는 것은 외부 세력이나 타인이 아니라 바로 윤 직원의 피붙이인 손자 ‘종학’일 수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종학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은 인용된 고사(古事) 속 인물인 ( ① )이다.

한편 이 소설은 사회나 인물의 부정적인 면을 비웃으면서 비판하는 ( ② )의 기법이 잘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 ② )은/는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나 인간의 잘못을 폭로하거나 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을 지닌다. 손자 종학이 일본 유학 중 사상 문제로 경찰에 붙잡힌 소식을 두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오죽이나…….”라며 윤 직원은 식민지 현실을 ‘태평천하’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와 민족의 현실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인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제목 ‘태평천하’는 채만식의 또 다른 소설인 ‘치숙’이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처럼 제목 자체가 ( ③ )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 예시 답안

### 정답

- ① 호해      ② 풍자      ③ 반어

### 풀이

윤 직원에게 있어서 종학은 그 옛날 진시황의 파멸을 초래한 ‘호해’와 유사한 인물로 작품에 서술되고 있으며, 이 작품은 윤 직원의 삶 자체를 비판하는 ‘풍자’의 성격이 짙은 작품이다. 또한 제목이 당대의 상황을 정 반대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반어’라 할 수 있다.

## ■ 채점 기준

①, ②, ③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호해    | 3점 |
| ②     | 풍자    | 3점 |
| ③     | 반어    | 4점 |

## 문항 4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단행동의 딜레마란 집단 구성원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무임승차 심리, 즉 타인의 성과에 묻어가려는 심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정치 학자인 퍼트남은 이 딜레마를, 강제력을 가진 제삼자의 개입이 아닌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 간의 협력을 촉진시켜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요소로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같은 자본이라도 사회적 자본은 인간의 상호 작용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장비인 물질적 자본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싯대와 배를 사용했다면 이 둘은 물질적 자본에 해당한다.

호혜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으로 균형적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이 있다. 균형적 호혜성은 특정한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상호 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비해 일반화된 호혜성은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가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으로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교환 관계를 통해 미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상호 기대를 전제로 한다. 퍼트남은 일반화된 호혜성이 통용되어야 무임승차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뢰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고 그 행동이 일관될 것이라고 기대할 때 형성된다. 두터운 신뢰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서, 얇은 신뢰는 짧은 기간 만난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퍼트남은 두터운 신뢰에서 나타나는 강한 결속이 배타적인 태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았기에, 얇은 신뢰의 수준이 높은 것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협력이 촉진되어 사회 통합에 더 유용하다고 보았다.

퍼트남은 일반화된 호혜성과 얇은 신뢰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중에서도 수평적 네트워크의 형태인 구성원이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이 오랜 기간 축적된 집단의 구성원일수록 도덕적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이를 20세기 이탈리아에서 자치 제도를 실시했을 때 북부가 남부에 비해 잘 정착된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12세기 공화정 때부터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북부 시민들은 문화 단체, 동호회 등의 소규모 공동체 조직에서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쌓여 왔다. 반면 남부 시민들은 상하 관계로 연결된 수직적 네트워크 하에서 공적인 일들은 정치인이나 최고 책임자의 일이라고만 여겼고, 부도덕한 관행에 대해 더 강력한 규율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남부에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미미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물질적 자본은 일종의 소모품이므로 사용할수록 마모되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그 집단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호혜성과 신뢰도 증진되어 집단 구성원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4. 제시문의 관점에서 아래 상황들을 분석할 때 <보기>의 ㉠~㉨ 중 잘못된 것을 2개 찾고 수정한 내용을 각각 쓰시오.

#### 제시문

##### <상황1>

오래전부터 ○○ 마을 사람들은 김장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공동작업으로 해결하는 관습을 따르고 있다. 그 해에 김장 관련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회관에 모여 협의를 하고 구매처와 구매비용 등을 논의한다. 김장을 할 때면 집집마다 담그는 김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집이든 일이 끝나면 새로 담은 김치로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한다.

##### <상황2>

한 달 전 △△마을이 수해를 입자, 그 마을에 사는 K씨는 구청의 민원 게시판에 정부의 수해 복구 지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그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K씨의 글에 동의하는 댓글을 달며 조속한 지원과 보상 처리

를 요구했다. 그러자 구청에서 일당 받고 일하는 용역업체 사람들을 채용하여 수해 복구 작업에 긴급 투입시켰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과 용역업체 사람들이 처음 만나 수해 복구 작업을 함께 하였다.

<보기>

|     | 호혜성 측면    | 신뢰 측면    | 네트워크 측면    |
|-----|-----------|----------|------------|
| 상황1 | ㉠ 균형적 호혜성 | ㉡ 두터운 신뢰 | ㉢ 수평적 네트워크 |
| 상황2 | ㉣ 균형적 호혜성 | ㉤ 얇은 신뢰  | ㉥ 수평적 네트워크 |

■ 예시 답안

정답

- ① 잘못된 것: ㉠ 수정한 내용: 일반화된 호혜성
- ② 잘못된 것: ㉡ 수정한 내용: 수직적 네트워크

풀이

- ① 2문단에서, 균형적 호혜성은 특정한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일반화된 호혜성은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가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으로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교환 관계를 통해 미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상호 기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상황1>은 다른 집의 김장을 도와주고 언젠가 자기 집의 김장을 할 때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에 해당한다. 반면 <상황2>는 일당을 받고 수해 복구 작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균형적 호혜성에 해당한다.
- ② 4문단에서, 상하 관계로 연결된 수직적 네트워크는 해결해야 할 공적인 일들을 정치인이나 최고 책임자의 일이라고만 여기기에 사회적 자본 축적이 부족한 것인데, <상황2>는 수해 복구 작업을 구청에 요구하는 수직적 네트워크 형태를 보인다. <상황1>이 마을 사람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로 김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달리, <상황2>는 정부와 시민 사이의 수직적 네트워크 속에서 수해 복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채점 기준

①, ②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 일반화된 호혜성 | 5점 |
| ②     | ㉡ 수직적 네트워크 | 5점 |

문항 5

「5」 아래 작품에 대한 <보기> 설명의 빈칸에 알맞은 3어절의 시구를 찾아 쓰시오.

산슈간 바회 아래 뽕집을 짓노라 하니,  
그 물론 늙들은 웃는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뽕\*디는 내 분(分)인가 흥노라.

보리밥 풋늬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곳 뽕7의 슬긱지 노니노라.  
그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뽕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흥라.  
말슴도 우웁도 아녀도 몰내 도하흥노라.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흥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흥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 | 낙뽕더라.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눌히 아르실샤,  
인간만사(人間萬事)를 흥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도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희라 흥시도다.

강산(江山)이 도타 흥들 내 분(分)으로 누얼늬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흥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 윤선도, 「만흥(漫興)」

\*하암의 뽕 : 향암(鄉闇)의 뜻(시골뜨기의 생각)

<보기>

이 작품은 세속적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친화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난 연시조이다. 작품에는 속세와 자연의 서로 대립된 가치가 여러 시어들로 드러나 있는데, 가령 ‘늙들, 삼공, 만승, 인간만사’ 등의 시어들은 ①세속적 가치를, ‘뽕집, 보리밥, 소부 허유, 임천한흥’ 등의 시어들은 ②자연친화의 가치를 담고 있는 시어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①과 ②를 나타내는 시구를 1~2연에서 각각 찾으면 다음과 같다.

|            |  |
|------------|--|
| ①을 나타내는 시구 |  |
| ②를 나타내는 시구 |  |

## ■ 예시 답안

### 정답

- ① 그나쁜 녀나쁜 일 / 나머지 여남은 일 (→ 복수정답)
- ② 어리고 햅암의 뿔 / 어리석고 햅암의 뿔 (→ 복수정답)

### 풀이

세속적 가치를 나타내는 시어는 자연 속에서의 일상과는 다른 ‘그나쁜 녀나쁜 일’로 삼공, 만승, 인간만사 등이 해당된다. 반면 자연을 벗삼고(임천한흥) 소부 허유가 한 것처럼 띠집을 짓고 보리밥을 먹는 행위는 시골 뜨기의 뜻인 ‘어리고 햅암의 뿔’과 상통한다.

## ■ 채점 기준

①, ②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함. 정답의 현대어 풀이인 ‘나머지 여남은 일’과 ‘어리석고 햅암의 뿔’도 정답으로 처리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그나쁜 녀나쁜 일 / 나머지 여남은 일 (→복수정답)  | 5점 |
| ②     | 어리고 햅암의 뿔 / 어리석고 햅암의 뿔 (→복수정답) | 5점 |

문항 6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경과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동일론에서는 정신 상태를 뇌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능주의는 정신 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동일론을 비판한다. 가령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로봇이 발명되었다고 상상해보자. 그 로봇은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실리콘 칩과 전선이 작동하여 고통을 느낀다. 로봇의 정신 상태는 우리와 똑같지만 로봇의 고통을 구현하는 물질은 뇌가 아니다.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상관없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로봇이나 마찬가지다. 기능주의에서 정신은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인과적 역할로서 정의된다. 가령 고통이란 누군가가 꼬집으면(입력) ‘아야!’하고 소리를 내는 것(출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 인과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뇌의 신경세포지만 로봇에게는 실리콘 칩이 될 수 있다.

설(Searle)은 가상의 중국어 방 사유 실험을 통해 컴퓨터는 인간과 같은 정신 상태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모국어가 영어이고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폐쇄된 ‘중국어 방’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 방에는 중국어 글자들이 들어 있는 상자가 있고, 중국어로 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칙들을 담고 있는, 영어로 된 규정집이 있다. 이 규정집의 규칙들은 상자 안의 중국어 글자들을 문장 규칙에 따라 배열하여 문장을 만들게 하여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다. 이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에게 중국어로 된 질문이 주어지면, 그는 규정집의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대답을 방 밖으로 내보낸다. 이때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의 대답은 “이해하지 못한다.”이다. 왜냐하면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규칙에 따라 계산적 기능을 수행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뿐이기 때문이다. 설에 따르면, 컴퓨터가 계산적 정보 처리를 하는 방식은 중국어 방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다. 규정집은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중국어 글자가 가득 든 상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 컴퓨터는 데이터의 모양만 보고 데이터를 1과 0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기호를 순전히 모양만 보고 식별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흉내내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마음을 지닌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한 설에게 중국어 방 논증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것이었다. 설은 기능주의자들의 생각이 강한 인공지능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강한 인공지능은 중국어 방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이 특정 기능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일 뿐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보기>는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①~③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기능주의는 정신 상태를 뇌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는 ( ① )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기능주의 관점에서 정신은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 ② )로서 정의된다. 정신 상태는 뇌의 신경세포든 실리콘 칩이든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입력과 출력의 프로그램을 가진 컴퓨터도 인간의 정신을 가진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설의 중국어 방 논증에 따르면,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규칙에 따라 ( ③ )을/를 수행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의 마음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강한 인공지능도 단지 규칙에 따라 정보를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 ■ 예시 답안

### 정답

- ① 동일론      ② 인과적 역할      ③ 계산적 기능

### 풀이

- ① 1문단에서 동일론에 대한 설명과 기능주의는 동일론을 비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② 1문단에서 기능주의에서 정신은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인과적 역할로서 정의된다는 문장이 서술되어 있다.  
 ③ 2문단에서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규칙에 따라 계산적 기능을 수행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 ■ 채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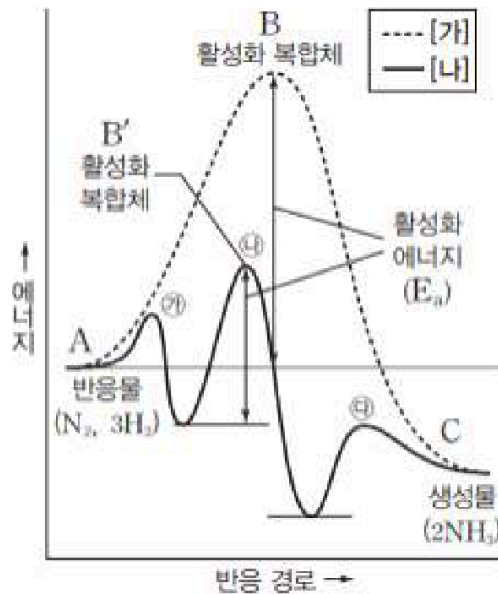
①, ②, ③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동일론    | 3점 |
| ②     | 인과적 역할 | 3점 |
| ③     | 계산적 기능 | 4점 |

## 문항 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해야 한다. 운동 에너지와 방향,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분자는 반응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부르며,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만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반응이 느리게 진행된다.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그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그래프>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매개 물질을 ‘촉매’라고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정촉매,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부촉매라고 한다. 위의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반응 경로에 따라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표시한 것이다. 가로축인 ‘반응 경로’는 반응물인 질소 ( $N_2$ )와 수소 ( $3H_2$ )가 서로 충돌하여 생성물인 암모니아 ( $2NH_3$ )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한편 세로축인 ‘에너지’는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이 반응 경로의 특정한 시점에서 갖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반응물 ( $N_2, 3H_2$ )이 각각 존재할 때(A 위치)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갖지만,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의 활성화 복합체(B 위치)는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된다. 그 둘의 에너지 크기의 차이가 곧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이다. 활성화 상태를 거쳐서 드디어 암모니아가 생성되면(C 위치), 생성물 ( $2NH_3$ )은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정촉매는 어떻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을까? 암모니아 합성 사례로 이를 살펴보자.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 분자가 촉매의 표면에 흡착을 하게 되면 각각 원자 상태로 분해되고, 이렇게 흡착한 수소와 질소는 촉매의 표면에서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 암모니아로 전환되며,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는 촉매 표면에서 떨어져 기체 생성물이 된다. 이 과정 중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하여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은 질소 분자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고, 그 결과 반응 속도가 느리다. 결국 이 반응의 속도에 따라 전체 반응의 속도가 결정되는데, 이처럼 화학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특정 반응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 반응물과 촉매의 반응은 촉매가 없을 때의 기존 반응 경로와는 다르게 진행된다. 촉매 공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며, 그 반응 단계들의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가 없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 반응 단계들 중에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 결정 단계도 포함되므로 결국 촉매는 전체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결국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촉매가 없을 때와 달리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함으로써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다.

[문항 7] <보기>는 제시문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이다. ①과 ②에 적합한 말을 쓰시오. (②는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위 그래프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의 촉매 사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래프에 나온 [가] 공정과 [나] 공정 중에 정촉매가 사용된 공정은 ( ① )일 것이다. 왜냐하면 정촉매는 화학 반응에서 ( ② )을/를 낮춤으로써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인데, [가] 공정의 속도 결정 단계인 B에 비해 [나] 공정의 속도 결정 단계인 B'의 활성화 에너지 크기가 현저히 작으므로 ( ① ) 공정의 전체 반응 속도가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공정에 비해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①: \_\_\_\_\_

②: \_\_\_\_\_

## ■ 예시 답안

### 정답

- ① [나]
- ② 활성화 에너지

### 해설

- ① 3문단에서, 반응 과정 중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아 반응 속도가 가장 느린 반응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고 하였으므로 B와 B'는 각각 [가], [나]의 속도 결정 단계에 해당하는데, B에 비해 B'가 현저히 낮으므로 [가]는 비촉매 공정, [나]는 촉매 공정 중 정촉매가 사용된 공정으로 볼 수 있다.
- ② 2문단에서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 채점 기준

①, ②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나]     | 5점 |
| ②     | 활성화 에너지 | 5점 |

# 2025학년도 2교시 (2세트)

## 문항 1

[문항 1] 다음을 바탕으로 관형어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보기1>에 정리하였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보기2>에서 찾아 쓰시오.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해당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관형사는 언제나 관형어로 쓰이며, 체언은 조사 ‘의’와 함께 관형어를 이룰 수도 있고 조사 없이 관형어가 될 수도 있다.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르, -던’이 붙어서 관형어로 쓰이기도 한다.

### <보기1>

- ㉠처럼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로 쓰인 것은 ( ① )(이)다.
- ㉡와는 달리 조사가 없이 관형어로 쓰인 체언에는 ( ② )이/가 있다.
- ㉢처럼 관형사가 관형어인 단어에는 ( ③ )이/가 있다.

### <보기2>

- 우리 학교는 매우 ㉣긴 역사를 자랑한다.
- 나는 ㉡창고의 헌 책을 정리했다.
- ㉢새 구두를 본 그녀는 기분이 좋았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예시 답안

### 정답

- ① 본
- ② 우리
- ③ 헌

### 해설

- ① ‘보다’에 관형형 어미 ‘~ㄴ’이 붙어 ‘본’이 되었다.
- ② ‘우리 학교’에서 대명사 ‘우리’가 조사 ‘~의’ 없이 학교를 수식하고 있다.
- ③ ‘헌 책’에서 ‘헌’은 그 자체로 관형사로 ‘책’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 채점 기준

①, ②, ③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본     | 3점 |
| ②     | 우리    | 3점 |
| ③     | 헌     | 4점 |

##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제 견해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즉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는 사람들 모두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 생명, 그리고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정작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면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에 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의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 관계를 팽개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써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군주가 백성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대지 않으면 항상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처형이 필요하다거나,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로 국한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군주는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거칠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군대란 그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 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의 활약에 관한 설명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비록 수많은 종족들이 뒤섞인 대군을 거느리고 이역에서 싸웠지만, 강력한 군대 통솔의 결과로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의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부하들로 하여금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인정 없고 모진 성격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키피오는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군대는 에스파냐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그가 적절한 군사적 기율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비우스는 원로원에서 그를 탄핵하면서 로마 군대를 부패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스키피오가 임명한 지방 장관이 로크리 지방을 약탈했을 때, 스키피오는 그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또한 오만한 성품을 가진 그 지방 장관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키피오의 과도하게 자비로운 성격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이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군주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움을 받는 일만은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문항 2-1] 저자의 핵심 주장이 담긴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① 첫 어절: \_\_\_\_\_, 끝 어절: \_\_\_\_\_

[문항 2-2]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례로서 <보기>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4어절 이하로 쓰시오.

<보기>

|        | 지도자 이름 | 지도자의 성격 |
|--------|--------|---------|
| 긍정적 사례 | ㉠      | ㉡       |
| 부정적 사례 | ㉢      | ㉣       |

② ㉠: \_\_\_\_\_, ㉡: \_\_\_\_\_

③ ㉢: \_\_\_\_\_, ㉣: \_\_\_\_\_

## ■ 예시 답안

### 정답

- ① 현명한, 합니다
- ② ㉠ 한니발, ㉡ 인정 없고 모진 성격
- ③ ㉢ 스키피오, ㉣ 과도하게 자비로운 성격

### 해설

- ① 3문단 첫째 줄에 저자의 핵심 주장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 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가 나와 있다. 첫 어절은 ‘현명한’, 끝 어절은 ‘합니다’이다.
- ②와 ③ 4문단에 한니발의 인정 없고 모진 성격의 긍정적 예, 스키피오의 과도하게 자비로운 성격의 부정적 예가 잘 나와 있다.

## ■ 채점 기준

①, ②, ③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에 ‘과도하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므로 ‘자비로운 성격’은 오답임.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현명한, 합니다               | 4점 |
| ②     | ㉠ 한니발, ㉡ 인정 없고 모진 성격   | 3점 |
| ③     | ㉢ 스키피오, ㉣ 과도하게 자비로운 성격 | 3점 |

### 문항 3

[문항 3] 다음 시에 대한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시어를 2어절 이하로 찾아 쓰시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永遠)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을  
알리라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쇠 항아릴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久遠)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憐憫)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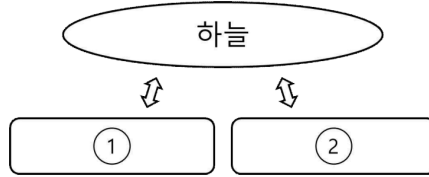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보기>

이 작품은 구속과 억압의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진실은 왜곡되고 구속과 억압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모르는 민중은 ( ① )와/과 ( ② )을/를 ‘하늘(진실, 진리)’로 착각하고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진실이 은폐되었음을 파악하고 왜곡된 현실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 행동 권유를 ( ③ )와/과 ( ④ ) 같은 명령형의 시어로 제시하고 있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 ■ 예시 답안

### 정답

- ① 먹구름  
② 향아리 / 쇠 향아리  
③ 닦아라  
④ 찢어라

### 해설

2연과 3연에서 ‘먹구름’과 ‘(쇠) 향아리’는 하늘을 가리고 있는 시어들로 현실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진실을 은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4연에서 화자는 먹구름과 향아리를 ‘닦고’, ‘찢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 ■ 채점 기준

①, ②, ③, ④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①, ②의 순서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③, ④의 순서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먹구름                 | 3점 |
| ②     | 향아리 / 쇠 향아리 (→복수정답) | 3점 |
| ③     | 닦아라                 | 2점 |
| ④     | 찢어라                 | 2점 |

문항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위법성과 유책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구성 요건이란, 형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함을 알고도 그 행위를 의도적으로 실현한 경우를 ㉠고의라고 하고,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해칠 것임을 몰랐더라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고 한다. 의도적인 규범 불복중에 해당하는 고의에 비해서 과실은 불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되,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라고 명시한 형법 제14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14조는 과실의 개념 요소로 ‘주의를 게을리’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부주의, 즉 주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법익 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이른다. 달리 말하면, 행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과실범의 본질은 주의 의무 위반에 있다. 따라서 과실범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그 행위와 관련된 주의 의무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로 교통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세부 항목 중 제4호로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을 명시하였다. 즉 규정에 명시된 장소에서 주행 중인 모든 운전자는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빠르게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주의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편, 법문에서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밝혔으나, 그 수준과 정도에 대해 무엇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주의 의무의 표준에 대한 견해에는 객관설과 주관설, 절충설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객관설 즉 평균인 표준설을 따르는 것이 통설이다. 평균인 표준설은 법 규범의 선도적·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영역에서 행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정형화·표준화되어 적용되도록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 구성원에게 일상에서 남다른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도록 강요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과실의 주의 의무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바로 ‘허용된 위험’이다. 즉, 행위자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비록 그 행위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도로 교통법이나 의료법에는 위험의 발생 빈도가 높은 영역에 대해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기준을 명문화한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구성 요건의 배제 여부가 결정된다.

\*법익: 형법에서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

[문항 4] <보기>의 ①~④ 사례를 제시문의 ㉠~㉢로 알맞게 분류하시오.

<보기>

- ①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다른 차에 추월당하자 보복 운전의 목적으로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낸 경우
- ②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술 전 동의서도 받았으나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 ③ 숙련된 택시 기사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규정 속도에 맞게 안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행인을 발견하고 즉시 급정거를 했으나 행인이 다치게 된 경우
- ④ 운전자가 도로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탈길의 내리막길에서 감속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 ■ 예시 답안

### 정답

- ① ㉠(고의)
- ② ㉢(과실 책임 없음)
- ③ ㉢(과실 책임 없음)
- ④ ㉡(과실)

### 해설

2문단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함을 알고도 그 행위를 의도적으로 실현한 경우를 고의,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해칠 것임을 몰랐더라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다. ①은 보복 운전의 고의성이 명백하여 고의에 해당하고, ④는 3문단에 나와 있는 비탈길에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과실에 해당한다. 또한 4문단에서 행위자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비록 그 행위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도로 교통법이나 의료법에서 그러한데 ②와 ③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과실 책임이 없다.

## ■ 채점 기준

①, ②, ③, ④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 / 고의 / ㉠(고의) (→복수정답)             | 2점 |
| ②     | ㉢ / 과실 책임 없음 / ㉢(과실 책임 없음) (→복수정답) | 3점 |
| ③     | ㉢ / 과실 책임 없음 / ㉢(과실 책임 없음) (→복수정답) | 3점 |
| ④     | ㉡ / 과실 / ㉡(과실) (→복수정답)             | 2점 |

문항 5

※ 아래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문(廣文)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일찍이 종루(鐘樓)의 저잣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 나가고 그중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 나가 밥을 빌어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하였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콩콩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 주었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하여 가지고 떠났다.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水標橋)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 버리는데,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 서쪽 교외 공동묘지에다 묻고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 그제야 그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하였다. 집주인이 내심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하여 **고용인(雇傭人)**으로 삼게 하였다.

오랜 후 어느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다,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는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최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 가져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에게,

“나는 소인이다, **장자(長者)\***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날이 없다.”

하고 사죄하였다. 그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고, 또 여러 종실(宗室)의 빈객들과 공경(公卿) 문하(門下)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해 대니, 공경 문하의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의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 박지원, 「광문자전(廣文者傳)」

\*장자(長者) : 덕망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아 세상일에 익숙한 어른.

[문항 5] 위 작품의 밑줄 친 인물들 중에서 ‘광문’을 지칭하는 3명의 인물을 모두 찾아 쓰시오.

## ■ 예시 답안

### 정답

우두머리, 고용인, 장자

### 해설

‘광문’은 처음에 거지들의 ‘우두머리’였으며, 약국 부자에게 속한 ‘고용인’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으로 ‘장자’로 칭송까지 되었다.

## ■ 채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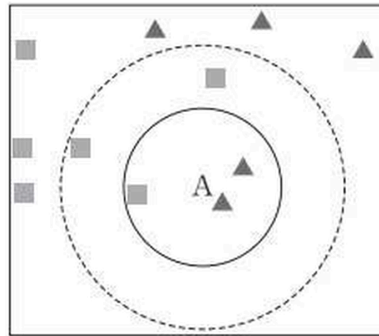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함. 3개 전부 다 맞아야 10점임. 1개라도 틀리면 0점임.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채점 기준         | 배점  |
|---------------|-----|
| 우두머리, 고용인, 장자 | 10점 |

## 문항 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계 학습에서의 학습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에 따른 것이다. 지도 학습은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 입력과 그에 해당하는 출력이 쌍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에서 입력과 출력 간의 함수 관계를 배운다. 이렇게 얻어진 함수가 모델인데, 모델은 새로운 입력에 해당하는 출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 지도 학습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 풀이로는 패턴 분류가 있다. 패턴 분류 문제에서 입력은 패턴의 표현이고 출력은 라벨, 즉 패턴 범주의 명칭이다. 사진을 보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학습을 가정해 보자. 분류는 기준에 따라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지도 학습을 완료한 시스템은 처음 보는 사진이더라도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도 학습으로 개와 고양이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훈련에 사용된 사진과 많이 다른 사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도 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K-NN 분류 알고리즘은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데이터 k개를 이용해 해당 데이터를 유추하는 알고리즘이다. 가령 <그림>의 A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이터 3개를 이용한다면, 삼각형 2개와 사각형 1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경우 A는 삼각형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K-NN 분류 알고리즘의 장점은 간단하고 빠르며 거리 기반의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기존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한 후 분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비지도 학습은 입력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출력 정보가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 즉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비지도 학습에서는 데이터 집합에 숨겨진 규칙성을 찾게 되는데, 비지도 학습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 풀이에는 군집화가 있다. 군집화는 훈련용 데이터 집합에서 서로 유사한 것들을 스스로 묶어서 군집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군집화를 위해서는 유사성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하는데, 데이터 간의 ‘거리’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여러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군집화 알고리즘들의 기본 아이디어는 같은 군집에 속한 데이터와의 거리는 최소로 줄이고, 다른 군집에 있는 데이터와의 거리는 최대로 늘리기 위해 군집의 소속을 바꿔 가면서 최적 구성을 찾는 것이다. 군집화 알고리즘 중 하나인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군집으로 묶는 알고리즘이다. 임의로 k개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그것을 각 군집의 중심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이 있는 군집으로 할당한다. 즉 각 군집에는 군집의 중심이 있고 각 군집의 점은 다른 군집의 중심보다 지정된 군집의 중심에 더 가깝다. 군집에 할당된 모든 데이터의 평균점을 그 군집의 중심으로 다시 정하고 할당을 반복하다가 군집의 소속이 변화가 없으면 종료한다.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군집의 개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문항 6]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 중 적절하지 않은 것 2가지를 찾아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보기>

- K-NN 분류 알고리즘과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모두 데이터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데이터 간 유사성이 있다고 전제한다.
- K-NN 분류 알고리즘은 <그림>에서 k의 값을 3으로 설정한 경우 A를 ㉡삼각형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다.
-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k는 군집의 ㉢강도이며 이 값이 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각 군집의 중심 위치가 군집에 할당된 모든 데이터의 ㉣평균점과 일치하여 군집의 소속이 변화가 없으면 할당을 종료한다.

|   |                       |
|---|-----------------------|
| ㉠ | 적절하지 않은 것:<br>수정한 내용: |
| ㉡ | 적절하지 않은 것:<br>수정한 내용: |

## ■ 예시 답안

### 정답

- ㉠ 적절하지 않은 것: ㉠    수정한 내용: 삼각형  
 ㉡ 적절하지 않은 것: ㉢    수정한 내용: 개수

### 해설

- ㉠ 1문단에서 K-NN 분류 알고리즘은 <그림>에서 k의 값을 3으로 설정한 경우 A의 범주에 삼각형이 2개, 사각형이 1개로 삼각형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 잘못되었고 ‘삼각형’으로 수정해야 한다.
- ㉡ 2문단에서 k는 군집의 강도가 아닌 군집의 개수이며,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군집의 개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나와 있으므로, ㉢이 잘못되었고 ‘개수’로 수정해야 한다.

## ■ 채점 기준

㉠, ㉡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 ㉠ 삼각형 | 5점 |
| ㉡     | ㉢ 개수  | 5점 |

## 문항 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뉴턴은 물체의 위치 및 속도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이지만, 시간과 길이는 관찰자와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우주 어딘가에 공간적으로 완전히 정지한 좌표인 절대 공간과, 우주 어디에서나 같은 빠르기로 흐르는 절대 시간이 오랫동안 당연시되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광속은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가정에 기초를 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관찰자와 무관하게 광속이 같다면 광속이 빨라지거나 느려 보이는 것은 변하지 않는 광속에 대해 관찰자의 시간과 공간이 변화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는 시간 간격은 측정하는 기준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움직이는 기준틀의 시간은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인 고유 시간보다 천천히 가는데, 이를 시간 지연이라고 한다. 따라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 비행하는 우주선 안에서 과녁을 향해 빛을 쏘고 달 표면에서도 같은 장치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다른 과녁에 빛을 쏘면 달에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있는 장치에서 쏜 빛이 과녁에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길어도 관측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지한 관측자에게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물체보다 짧게 보인다. 예를 들어 정지한 달에서 보면 같은 우주선이라도 움직이는 우주선의 길이가 달 표면에 정지해 있는 우주선보다 더 짧은 것으로 보인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절대주의를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세계의 본질에 관한 실재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대성 이론의 영향을 받은 과학사회학의 연구도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정의를 부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실재성을 얻으려 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과학에 대한 사회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과학 사회학자들은 과학적 지식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보았다.

[문항 7] 제시문을 바탕으로 아래 <상황>에 대해 보인 반응을 <보기>에 정리하였다. ㉠~㉣ 중에서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반응에 해당하는 것들만 모두 찾아 ①, ②에 각각 쓰시오.

<상황>

A는 등속으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있다. B와 C는 기차 밖에 있다. B는 정지해 있고, C는 기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A는 기차 안에서 기차의 운동 방향으로 빛을 쏘았다.

<보기>

- ㉠ A, B, C 중 누가 관찰하더라도 광속은 같겠군.
- ㉡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겠군.
- ㉢ A와 B에게 시간은 동일한 빠르기로 흐르겠군.
- ㉣ B에게는 기차의 길이가 정지해 있을 때보다 짧게 보이겠군.
- ㉤ B와 C는 운동 상태가 다르므로 기차의 속도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겠군.

|   |        |
|---|--------|
| ① | 뉴턴:    |
| ② | 아인슈타인: |

## 예시 답안

정답

- ① 뉴턴: ㉢, ㉤
- ② 아인슈타인: ㉠, ㉣

**해설**

- ① 1문단에서 뉴턴은 시간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보았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 1문단에서 뉴턴은 물체의 위치 및 속도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보았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㉔과 ㉕이 뉴턴 입장에 해당한다.
- ② 1문단에서 아인슈타인은 광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보았음을 제시하고 있다. 1문단에서 아인슈타인은 정지한 관찰자에게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짧게 보인다고 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정지한 B에게는 기차의 길이가 정지해 있을 때보다 짧게 보인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㉖과 ㉗이 아인슈타인 입장에 해당한다.
- ㉘의 경우, 1문단에 따르면, 시간 지연에 따라 움직이는 기준틀의 시간은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인 고유 시간보다 천천히 간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은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천천히 흘러간다고 여길 것이다. 이견 아무에게도 해당하지 않는다.

**■ 채점 기준**

①, ②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㉔, ㉕  | 5점 |
| ②     | ㉖, ㉗  | 5점 |

# 2025학년도 3교시 (3세트)

## 문항 1

[문항 1]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의 밑줄 친 대명사를 분석한 후, ㉠~㉣을 빈칸에 알맞게 분류하여 쓰시오.

### <보기1>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인 인칭 대명사 가운데 재귀 대명사는 선행 내용에 제시된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이다. 우리말 3인칭 재귀 대명사에는 ‘저’, ‘저희’, ‘당신’ 등이 있는데, 이들은 동일한 형태로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 <보기2>

- 자식들이 다 커서 ㉠저희끼리 잘 모인다.
- 모든 시민들이 ㉡당신의 노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 막내는 항상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를 쓴다.
- ㉣저희가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 대명사 종류     | <보기2>의 기호 |
|---|------------|-----------|
| ㉠ | 1인칭 대명사    |           |
| ㉡ | 2인칭 대명사    |           |
| ㉢ | 3인칭 재귀 대명사 |           |

## 예시 답안

### 정답

- ㉠ 1인칭 대명사: ㉡
- ㉡ 2인칭 대명사: ㉢
- ㉢ 3인칭 재귀 대명사: ㉠, ㉣

### 해설

㉠은 선행하는 사람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 ㉡은 ‘너, 당신’의 의미가 있는 2인칭 대명사, ㉢은 선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 ㉣은 ‘나, 우리’의 의미가 있는 1인칭 대명사이다.

## 채점 기준

㉠, ㉡, ㉢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 ㉡     | 3점 |
| ㉡     | ㉢     | 3점 |
| ㉢     | ㉠, ㉣  | 4점 |

##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幸福)’이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행복은 일반적으로 만족, 즐거움, 보람, 쾌감 등의 좋은 감정이 있으며, 불안, 우울, 불쾌 등의 나쁜 감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행복이 인간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다는 것은 행복이 어떤 절대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와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다면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행복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의 개념과 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다.

행복이란 말에서 행(幸)은 운수가 좋은 것을 뜻하고, 복(福)은 착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이 내려 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복은 모두 인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신의 영역에 가깝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새옹지마(塞翁之馬)’를 생각하며 지금 불행하더라도 행복을 기다리거나, 선(善)을 쌓고 악(惡)을 행하지 않는 정도에 그친다. ‘선을 쌓은 집안에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보상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며, 보상이 올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 선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민간의 행복관과 달리 유가에서는 행복을 인간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둔다. ㉠공자는 행복과 비슷한 개념으로 즐거움[樂]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벼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외부적 사건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도(道)를 알고 실천하는 즐거움이라고 보았다. 공자는 진정한 행복이 외부적 사건들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행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의지와 수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공자는 제자인 안희가 누추한 거리에서 한 표주박의 물과 한 끼 밥으로 연명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을 안다고 칭찬했다. 민간의 관점에서 보면 안희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공자는 안희의 도덕적 삶이 행복의 모범이 될 만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는 공자가 ‘인(仁)’을 이루기 위해 강조한 ‘극기복례(克己復禮)’, 즉 욕망을 의지력으로 억제하고 ‘예(禮)’를 지키는 것과 연결된다.

도가에서는 유가의 ‘예’가 인위적인 것이라고 보고 인간적 즐거움의 근원인 자연법칙을 거스르지 않으려 했다. 이를 위해 도가에서 강조하는 것이 ‘양생(養生)’이다. 일반적으로 양생에 대해 건강을 유지하거나 신선이 되기 위한 방법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몸을 기르는 것을 ‘양형(養形)’이라고 하고, 정신을 기르는 ‘양신(養神)’과 구분하였다. 장자는 양형만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장자를 계승한 ㉡혜강은 ‘본성을 잘 닦아 정신을 보존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몸을 온전하게 하라.’라고 하여,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양생의 요체로 보았다. 행복을 위해서는 고통이 없어야 하는데, 고통은 외부에서 육체로도 오고 정신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혜강은 자연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비우고 태평함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결국 ㉢노자가 말했던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갖는 것[少私寡欲]’으로 귀결된다.

[문항 2-1] 제시문을 바탕으로 아래 진술에 동의하는 인물 ㉠~㉢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 ① 고통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조화가 필요하다.
- ② 욕망을 억제하고 도덕적 의지를 발현할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 ③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 진술 | 동의하는 인물 |
|----|---------|
| ①  |         |
| ②  |         |
| ③  |         |

[문항 2-2] <보기>의 ㉠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되는 인물을 제시문의 ㉡~㉣ 중에 찾아 쓰시오.

<보기>

에피쿠로스는 최소한의 고통과 최대한의 쾌락을 행복으로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를 최대한 즐기라는 에피쿠로스의 말이 감각적 쾌락이나 방종을 선동한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실제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금욕주의에 가까웠다. 에피쿠로스는 한정된 가치와 그것을 차지하려는 적의에 찬 세상에서 욕망의 만족과 성취를 거듭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행복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성취보다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특히 에피쿠로스는 ㉠세속적 일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추구함으로써 쾌락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             |
|---|-------------|
| ④ | ㉠에 동의하는 인물: |
|---|-------------|

## ■ 예시 답안

### 정답

① ㉡(혜강)    ② ㉢(공자)    ③ ㉣(노자)    ④ ㉡(공자)

### 해설

- ① 4문단에서 혜강은 장자가 양생(養生)을 양형(養形)과 양신(養神)으로 구분하는 견해를 계승하여 본성을 잘 닦아 정신을 보존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몸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고 하며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 ② 3문단에서 공자는 안회가 가난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을 안다고 칭찬했으며 이러한 도덕적 삶이 행복의 모범, 즉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고 있다.
- ③ 4문단에서 노자는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갖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불행한 것은 이러한 욕망과 쾌락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④ 3문단에서 공자는 진정한 행복이 외부적 사건들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다.

## ■ 채점 기준

①, ②, ③, ④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기호와 이름 둘 중 어느 것으로 써도 정답 처리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 / 혜강 / ㉡(혜강) (→복수정답) | 2점 |
| ②     | ㉢ / 공자 / ㉢(공자) (→복수정답) | 2점 |
| ③     | ㉣ / 노자 / ㉣(노자) (→복수정답) | 2점 |
| ④     | ㉡ / 공자 / ㉡(공자) (→복수정답) | 4점 |

문항 3

※ 아래 두 작품에 대한 <보기>의 설명을 참고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마음은 호수(湖水)요,

그대 노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玉)같이 /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門)을 닫어 주오.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어, 고요히 / 최후(最後)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불어 주오.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내 마음은 낙엽(落葉)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 김동명, 「내 마음은」

(나)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瀑布)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 (중략) ...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鐵柵)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荒涼)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帳幕) 저쪽에

고독한 반원(半圓)을 긋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문항 3] (가) 시의 밑줄 친 표현들은 <보기>에서 설명한 은유 중에서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시구들이다. 이를 토대로 (나) 시에서 ㉠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그 구절을 쓰시오.

<보기>

원관념을 그와 유사성이 있는 다른 대상인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직유와 은유이다. 직유(直喩)는 주로 ‘~같이, ~처럼, ~듯이’ 등을 사용하여 원관념과 보조 관념 간의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한편, 대개 ㉠‘A는 B(이다)’ 또는 ‘A의 B’ 같은 형식을 사용하는 은유(隱喩)는 문맥상의 암시를 바탕으로 비유적 의미를 전달한다. 「추일서정」은 참신하고 개성적인 비유들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작품이라고 평가받는다.

## ■ 예시 답안

### 정답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 해설

‘내 마음은 OO다’는 ‘A는 B(이다)’ 식의 은유법으로 낙엽을 쓸모없고 구겨진 지폐에 비유한 표현인 ‘낙엽(A)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B)’가 동일한 유형이다.

## ■ 채점 기준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 10점 |

## 문항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허권은 이전의 발명에 비해 새롭고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 신청, 즉 특허 출원을 한 뒤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주어진다. 특허 출원은 발명자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며, 특허 출원의 대상에는 물건의 발명뿐만 아니라 영업방식과 같은 방법의 발명까지 포함된다. 특허청이 특허 출원에 대한 판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하면 특허 출원자는 특허를 받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때의 이용은 산업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만 한정되는데 이러한 이용을 ‘실시’라고 표현한다.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특정인에게만 양도하는 것을 독점적 실시권의 양도라고 하고, 독점적 권한 없이 여럿에게 실시권을 양도하면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라고 한다. 어느 경우든 실시권을 양도한 특허권자는 실시권 양도의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실시료’라고 한다.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이 특허권을 가진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특허권 침해’라고 한다. 특허권 침해 행위는 민법상 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다.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당하면 침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타인의 고의나 과실 여부,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 행위는 침해 사실, 손해액 등을 특허권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 이에 특허법에는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해 주기 위한 규정들이 있는데,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련하여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특허 등록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특허법에서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일실 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실 이익이란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권자의 이익액, 즉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다. 이 규정에서는 일실 이익을 특허권자가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특허권자 A가 제품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B가 A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B가 제품 50개를 판매하고 A가 제품 60개를 판매하였다고 가정해보자. A가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은 100개이기 때문에 일실 이익은 제품 40개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한편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는데,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증하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면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침해자가 자신의 이익액이 특허권자의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통상 실시료를 통해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즉 일실 이익과 관계없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최소 배상액은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통상 실시료로 정한다. 통상 실시료는 일반적으로 판매액에 합리적 수준의 실시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문항 4]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진술에는 O, 적절하지 않은 진술에는 X를 표시하시오.

<보기>

스마트폰에 대한 특허권자인 K는 P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P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다음은 스마트폰 생산과 관련된 K와 P의 상황이다.

K는 매년 10만 대의 스마트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장을 갖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스마트폰 1대당 100만 원에 7만 대를 판매하였으며 1대당 2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P는 K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을 매년 8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다. P는 해당 스마트폰을 2023년 한 해 동안 스마트폰 1대당 80만 원에 5만 대를 판매하였으며 1대당 15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한편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 기기 시장에서 합리적 실시료율은 판매액의 5%이다.

|   | 진술                                                                           | O/X |
|---|------------------------------------------------------------------------------|-----|
| ① | K의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P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K가 입증할 수 있다면 K는 P가 그 이익액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
| ② | K가 P에게 통상 실시료를 손해 배상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면 K는 P로부터 최소 30억 원을 배상받게 된다.              |     |
| ③ | K가 P에게 일실 이익 추정을 통해 손해 배상액을 청구한다면 K의 스마트폰 수량 3만 대에 대한 이익금인 60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     |

## ■ 예시 답안

### 정답

① O    ② X    ③ O

### 해설

① 4문단에 따르면,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증하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O이다.

② 4문단의 규정에 따라서, K는 P가 1대당 80만 원에 5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판매액의 5% 실시료율로 하여 통상 실시료를 손해 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5만\ 대 \times 80만\ 원 \times 0.05 = 20억\ 원$ 이다. 그러므로 X이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일실 이익은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이다. K는 10만 대에서 7만 대를 뺀 수량 3만 대에 20만 원을 곱한 60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O이다.

## ■ 채점 기준

①, ②, ③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O     | 3점 |
| ②     | X     | 4점 |
| ③     | O     | 3점 |

문항 5

※ 아래 작품과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월의 냇물은 / 아으 얼고자 녹고자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서는 / 몸이여 홀로 지내가는구나  
아으 동동(動動)다리

<1월령>

이월의 보름에 / 아으 높이 켜  
등불 같구나 / 만인(萬人) 비추실 모습이로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2월령>

삼월 지나면 핀 / 아으 봄 산 가득 진달래꽃이여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 지니고 나셨네  
아으 동동(動動)다리

<3월령>

유월 보름에 / 아으 벼랑에 버린 빛과 같구나  
돌아보실 입을 / 잠깐 좇아갑니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6월령>

시월에 / 아으 저며 놓은 보리수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10월령>

십이월 분디나무로 깎은 / 아으 소반의 젓가락 같네  
임의 앞에 가지런히 놓으니 / 손님이 가져다 무웁니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12월령>

- 작자 미상, 「동동」

[문항 5]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①~③에 들어갈 1어절의 시어를 찾아 쓰시오. (단, 보기에 제시된 시어는 제외할 것.)

<보기>

「동동」은 이별한 입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을 열두 달에 맞추어 노래한 월령체 형식의 고려 가요이다. 고려 시대부터 구연되어 전하다가 조선 시대에 와서야 「악학궤범」에 한글로 실려 있다. 이 작품에는 화자가 생각하는 ‘임의 모습’과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가령 ‘등불’은 임의 모습을, ‘보리수’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다.

| ‘임의 모습’과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시어 |              |
|---------------------------|--------------|
| 임의 모습                     | ( ① )        |
| 화자의 처지                    | ( ② ), ( ③ ) |

## ■ 예시 답안

### 정답

- ① 진달래(꽃)    ② 빗    ③ 젓가락

### 해설

‘임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어는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난 ‘진달래꽃’이며,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시어는 버려진 ‘빗’과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선택된 ‘젓가락’이다.

## ■ 채점 기준

①, ②, ③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진달래(꽃) | 3점 |
| ②     | 빗      | 3점 |
| ③     | 젓가락    | 4점 |

## 문항 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물의 광합성이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과 산소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획득한다. 광합성의 과정은 빛이 필요한 단계인 명반응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단계인 암반응으로 나뉜다. 명반응은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암반응은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명반응에서는 광합성 색소에서 흡수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NADPH가 합성된다. 이 과정에서 물이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하고 이 산소는 기공을 통해 방출된다. 암반응에서는 포도당이 합성된다. 이때는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기공으로 흡수된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에 관여한다. 그런데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소 이온과 전자는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NADPH가 NADP<sup>+</sup>로 산화되면서 공급된다. 따라서 광합성은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암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식물의 생장에 알맞은 온도나 습도가 바뀌면 광합성 효율, 즉 시간당 포도당을 합성하는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벼는 온대 다습한 환경에서 광합성 효율이 높다. 하지만 벼를 사막과 같은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재배하면, 벼는 낮 동안 기공을 닫아 수분 손실을 막는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해, 벼 내부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비해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루비스코가 산소와 결합하게 되어, 벼는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현상인 광호흡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광합성 효율은 감소한다.

[문항 6] <보기>의 ㉠~㉢ 중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2가지를 찾아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 <보기>

- 명반응에서는 NADPH가 합성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발생한다.
- 암반응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단계로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난다.
- 고온 건조한 환경에 놓인 벼는 ㉢이산화탄소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공을 닫는다.
- 식물의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과 산소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   |                       |
|---|-----------------------|
| ㉠ | 일치하지 않는 것:<br>수정한 내용: |
| ㉡ | 일치하지 않는 것:<br>수정한 내용: |

## 예시 답안

### 정답

- ① 일치하지 않는 것: ㉡      수정한 내용: 스트로마  
 ② 일치하지 않는 것: ㉢      수정한 내용: 수분

### 해설

- ① 1문단에서 암반응은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것은 명반응이므로 ㉡은 스트로마로 수정해야 한다.  
 ② 3문단에서 고온 건조한 환경에 놓인 벼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공을 닫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공을 닫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은 수분으로 수정해야 한다.

## ■ 채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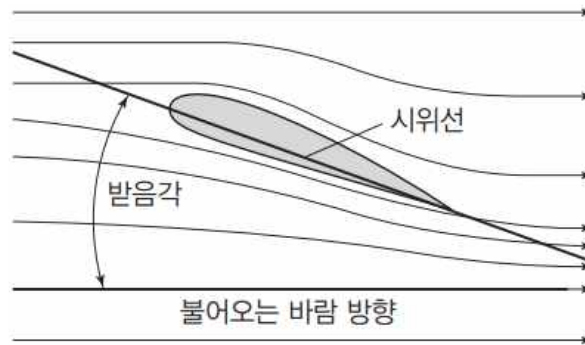
①, ②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 → 스트로마 | 5점 |
| ②     | ㉡ → 수분   | 5점 |

## 문항 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풍력 발전기는 바람 에너지를 날개에 부딪히게 하여 날개의 회전 운동으로 변환한 후, 이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풍력 발전기는 날개의 회전축이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평행한 것은 수평축형, 수직인 것은 수직축형으로 구분한다. 수평축형에서 바람은 날개와 나셀, 그리고 타워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나셀’은 회전 운동을 전기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을 모아 둔 상자이고, ‘타워’는 날개와 나셀을 높은 곳에 위치시켜 주는 구조물이다.



〈그림〉

〈그림〉은 수평축형의 날개 중 한 개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유선형의 날개에 부딪힌 바람은 날개의 곡면과 평탄한 면으로 나뉘어 흐른다. 곡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은 평탄한 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보다 속력이 빠르다. 그 결과 곡면 주변은 평탄한 면의 주변보다 압력이 낮아져,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들어 올리는 힘인 ‘양력’이 발생하게 되어 날개는 양력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때 풍속이 증가하면 양력도 증가한다. 한편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날개의 시위선이 이루는 각을 ‘받음각’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받음각이 클수록 동일한 풍속에서 발생하는 양력도 커진다. 수평축형의 날개는 10도 정도의 받음각을 이루고 있어서, 풍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력에 받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력을 합한 힘으로 날개를 회전시킨다. 이때 날개를 회전시킬 수 있는 풍속은 3m/s 이상이어야 한다.

나셀 내부에는 증속기, 제너레이터, 제어기가 들어 있다. 날개의 회전축은 증속기를 거쳐 제너레이터 축과 연결되어 있고, 제너레이터는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을 전기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때 증속기는 날개의 회전축의 회전 속력보다 제너레이터 축의 회전 속력을 더 증가시켜 준다. 제너레이터에서 출력되는 전기의 양을 ‘전기의 출력량’이라 하며, 과도한 고속 회전은 제너레이터를 손상시키므로 제너레이터의 내구성을 고려해 정해 둔 전기의 출력량의 최댓값을 ‘정격 출력’이라 한다. 정격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풍속이 15m/s에 도달해야 한다.

수평축형 풍력 발전기의 효율과 안정성을 위한 장치인 제어기에는 요잉 장치와 피치 장치, 브레이크 장치가 있다. 불어오는 바람이 모든 날개에 고르게 닿아야 발전 효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요잉 장치는 바람의 방향에 대응해 나셀을 움직여서, 회전축을 바람의 방향에 평행하도록 이동시킨다. 피치 장치는 고속 회전으로 인한 부품들의 손상을 막기 위해 날개를 움직여 받음각을 조절한다. 그래서 풍속 15m/s부터 25m/s까지는 정격 출력보다 더 많은 출력이 가능하나 정격 출력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 피치 장치는 풍속에 의해 양력이 증가하는 만큼 받음각을 조절하여 날개의 회전 속력을 일정하게 만든다. 풍속이 25m/s를 초과하면 부품들을 보호하기 위해 받음각을 0도로 만들고 추가적으로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되어 날개 회전을 중단한다. 이후 풍속이 줄어들면 브레이크 장치의 작동은 해제되고 피치 장치는 받음각을 복원한다.

[문항 7] <보기>는 ‘수평축형 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시간대별 풍속을 기록한 것이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각 시간대의 풍속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의 출력량 ㉠~㉢을 ①~③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시오.

<보기>

| 시간대           | 풍속                   | 전기의 출력량 |
|---------------|----------------------|---------|
| 오후 1시 ~ 오후 3시 | 1m/s에서 2m/s로 점차 증가   | ㉠       |
| 오후 3시 ~ 오후 5시 | 7m/s에서 14m/s로 점차 증가  | ㉡       |
| 오후 5시 ~ 오후 7시 | 17m/s에서 23m/s로 점차 증가 | ㉢       |
| 오후 7시 ~ 오후 9시 | 30m/s에서 26m/s로 점차 감소 | ㉣       |

|       |  |
|-------|--|
| ① 증가함 |  |
| ② 일정함 |  |
| ③ 없음  |  |

## ■ 예시 답안

### 정답

① 증가함: ㉡    ② 일정함: ㉢    ③ 없음: ㉠, ㉣

### 해설

① 2문단에서 풍속에 비례하여 양력이 증가하는 구간이 3m/s부터이고 3문단에서 정격 출력을 얻는 구간이 15m/s이라고 하였으므로, 풍속이 7m/s에서 14m/s로 점차 증가하는 2구간에는 발전기의 제너레이터에서 출력되는 전기의 출력량이 증가한다.

② 4문단에서 풍속 15m/s부터 25m/s까지는 정격 출력보다 더 많은 출력이 가능하지만 이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치 장치가 작동하여 날개의 회전 속력을 일정하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17m/s에서 23m/s로 점차 증가하는 3구간에서 전기의 출력량은 일정하다.

③ 2문단에서 날개를 회전시킬 수 있는 최소 풍속은 3m/s라고 했으므로 풍속이 1m/s에서 2m/s로 점차 증가하는 1구간은 풍속이 최소 풍속 3m/s에 미치지 못하므로 발전기의 제너레이터에서 전기가 출력되지 못한다. 따라서 ㉠의 전기의 출력량은 없다. 또한 4문단에서 풍속이 25m/s를 초과하면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되어 날개 회전을 중단한다고 하였으며, 제너레이터 축도 회전하지 않으므로 30m/s에서 26m/s로 점차 감소하는 4구간에서 전기의 출력량은 없다. 따라서 ㉣의 전기의 출력량은 없다.

## ■ 채점 기준

①, ②, ③의 답을 정확하게 쓴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함. 문장 부호 사용 여부는 정오답과 관련 없음.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①     | 증가함: ㉡   | 3점 |
| ②     | 일정함: ㉢   | 3점 |
| ③     | 없음: ㉠, ㉣ | 4점 |

# 2026학년도 모의논술

## 문항 1

[문항 1] 다음 <보기>의 ㉠~㉣이 실현된 구절을 예문에서 찾아 쓰시오.  
(어미의 경우 어미가 포함된 어절을 그대로 쓰고, 용언의 경우 기본형으로 쓰지 말고 예문의 어절을 그대로 쓸 것)

<보기>

- 주체 높임 실현 방법
  - ㉠ 선어말 어미에 의한 실현
  - ㉡ 주체를 높이는 용언에 의한 실현
- 객체 높임 실현 방법
  - ㉢ 부사격 조사에 의한 실현
  - ㉣ 객체를 높이는 용언에 의한 실현

| 예문                                  | ㉠ | ㉡ | ㉢     | ㉣ |
|-------------------------------------|---|---|-------|---|
| 어머니께서 김밥을 급히 드시고 할머니를 모시러 기차역에 가셨다. |   |   | 해당 없음 |   |

|   |    |
|---|----|
| ① | ㉠: |
| ② | ㉡: |
| ③ | ㉣: |

## 예시 답안

### 정답

① ㉠: 가셨다    ② ㉡: 드시고    ③ ㉣: 모시러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문항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산행 중 만난 작은 들꽃을 눈여겨보며 ‘아름답다’고 느낀다. 드높이 솟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그 광경이 ‘장엄하다’거나 ‘숭고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칸트는 이러한 미(美)와 숭고(崇高)의 판단이 우리에게 즐거움, 즉 쾌를 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둘은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논리적 판단이나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알게 하는 감각적 판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논리적 판단과 감각적 판단이 모두 객관과 관계된 것이라면, 미와 숭고는 오직 주체가 느끼는 감정, 즉 주관과 관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미와 숭고의 판단은 모두 특수한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도 그 대상에 대해 자신과 같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사람은 자신에게 아름답거나 숭고한 대상은 남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미와 숭고의 판단이 모두 반성적 판단, 즉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발견하는 판단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칸트는 미와 숭고가 서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우선, 미는 형식을 가진 대상에서 경험되는 반면, 숭고는 무형식적 대상에서 경험된다. 예를 들어 멀리서 산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은 산이라는 감각적 형식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형식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안개에 가려진 봉우리 밑에서 거대한 산의 일부만 바라볼 때는 대상의 전체 형식이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그 모습을 전부 드러내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숭고를 경험한다. 숭고에서 경험되는 무형식성은 감각적 형식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형식적 한계의 부재를 의미한다.

또한 미와 숭고의 차이는 합목적성에서도 드러난다. 합목적성이란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을, 반목적성이란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부적합성을 의미한다. 미로 인한 쾌의 감정은 그 대상이 형식적 합목적성을 지닐 때 느끼는 즐거움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대상의 형식은 우리의 판단력에 적합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숭고의 대상은 무형식적이어서 우리는 대상을 하나의 표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상을 파악하려는 인식의 노력은 좌절된다. 따라서 숭고의 대상은 우리의 판단력에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는다.

하지만 칸트는 숭고가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적 합목적성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우리는 거대한 대상을 하나의 감각적 표상으로 재현하는 것에 실패하면서, 불가능한 재현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성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숭고한 대상에서 무형식성이 표상되는 까닭은 전체에 대한 재현을 요구하는 이성의 총체성에의 요구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는 우리가 숭고를 판단할 때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 유발된 우리 자신의 숭고함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숭고의 체험을 통한 감동이나 존경, 장엄함의 감정은 대상을 매개로 우리 안에 있는 이성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즉 대상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대상 자체에서 찾을 수 있지만 대상에 대한 숭고함의 근거는 대상의 표상 속에서 숭고를 느끼는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찾아야 한다.

[문항 2] <보기>는 제시문을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의 ①~④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미와 숭고는 주체가 느끼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다. 미와 숭고 모두,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 ① ) 판단이나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알게 하는 감각적 판단이 아니라,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발견하는 ( ② ) 판단이다.

그러나 미는 대상에 대한 판단력의 형식적 합목적성을 지니는 데 반해, 숭고는 대상의 무형식성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판단력의 형식적 ( ③ )을/를 지니며 오히려 이를 통해 ( ④ )을/를 갖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   |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예시 답안

### 정답

① 논리적    ② 반성적    ③ 반목적성    ④ 이성적 합목적성

##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문항 3

※ (가),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 땅주인에게는 못 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 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 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나  
정말 얼마큼 적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야경꾼: 밤 사이에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

(나)

4·19가 나던 해 세밑 /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혜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흥내 낼 수 없는 노래를 /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 아무도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승동 길을 걸었다 /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겼다.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문항 3] (가) 시의 핵심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시구를 (나) 시에서 찾아 2어절로 쓰시오.

## ■ 예시 답안

정답

부끄럽지 않은가

##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문항 4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은 수많은 기업이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는 ‘완전 경쟁 시장’ 모형과 하나의 기업이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 시장’ 모형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시장 모형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로서, 이때 차별화된 상품이란 서로 유사하지만 품질이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 설렁탕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많지만 각 음식점마다 설렁탕의 맛은 다른 경우와 같이 각 상품의 품질은 다르지만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대체 가능하다.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기업들이 모두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면 그 기업의 상품은 팔리지 않는다. 즉 개별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서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공급량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완전 경쟁 시장의 수요 곡선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수요 법칙에 따라 음(-)의 기울기를 갖지만,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주어진 시장 가격에서 수평선이 된다. 반면 ‘독점 시장’의 경우 하나의 기업만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시장 수요 곡선이 곧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되며, 개별 기업은 공급량을 조절하여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설정자가 된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각 기업의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으므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시장 수요 곡선이 곧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다. 따라서 개별 기업은 자신의 상품에 대한 가격 설정자가 된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공급량을 시장에 공급한다. 한계 수입은 상품 공급량을 한 단위 변화시킬 때 상품 판매로 얻게 되는 수입의 변화량을, 한계 비용은 상품 공급량을 한 단위 변화시킬 때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우개 100개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이 지우개 공급량을 101개로 늘리면 100원의 추가 수입을 얻지만 50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한계 수입은 100원, 한계 비용은 50원이다. 따라서 이 기업은 지우개 1개를 추가로 공급하여 50원의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이윤은 판매 수입에서 상품 생산에 소요된 총비용을 뺀 순이익을 의미하므로, 초과 이윤의 발생 조건은 ‘판매 수입 > 총비용’이 된다. 이 식의 양변을 상품 공급량으로 나누면, ‘판매 수입/공급량 > 총비용/공급량’이 되는데, 좌변은 상품 한 단위당 수입인 평균 수입을, 우변은 상품 한 단위당 비용인 평균 비용을 의미한다. 즉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크면 기업은 초과 이윤을 얻는다. 이때 평균 수입은 상품의 시장 가격과 동일하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고 있는 경우, 새로운 기업도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품질만 다를 뿐 서로 유사하여 상품 간 대체성이 높으므로,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에 따라 기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수요 감소는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시장 가격이 하락하며, 시장 가격의 하락은 곧 평균 수입의 하락을 의미한다. 평균 수입이 하락하여 평균 비용과 같아지게 되면 초과 이윤이 0이 되므로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데, 이러한 상태를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이라 한다. 결국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단기에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에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 4. <보기>는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한 것이다. ㉠~㉣ 중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보기>

- ㉠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수요 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지만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므로 개별 기업은 가격 설정자이다.
- ㉡ 독점 시장에서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되며 개별 기업은 가격 설정자가 된다.
- ㉢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되며 개별 기업은 가격 설정자가 된다.

- ㉔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독점 시장 모형과 유사하며, 개별 기업이 가격 설정자라는 점에서 완전 경쟁 시장 모형과 유사하다.
- ㉕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에 초과 이윤이 발생할 경우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므로, 독점적 경쟁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 ㉖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면 상품의 추가 생산에 따른 수입의 증가분이 비용의 증가분보다 크다는 것이므로 기업은 상품 공급량을 증가시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 ■ 예시 답안

정답

㉔, ㉕, ㉖

##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문항 5

「5」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늦겨곰 바라매  
이슬 불간 드러리  
흰 구름 조초 떠 간 언저레  
물이 가른 물서리어히  
기랑(耆郎)의 즈시올시 수프리야  
일오(逸烏) 나릿 지벼귀  
낭(郎)이여 디니더시온  
묵수미 그술 좇노라져  
아야 자싯가지 노포  
누니 모들 두폴 곳가리어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耆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逸烏) 내 자갈 벌에서  
낭(郎)이 지나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 충담사, 「찬기파랑가」

5. 위 작품은 화랑인 ‘기파랑’을 찬양하는 신라 승려의 향가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시어들 중에서 ‘기파랑’의 인품을 상징하는 시어를 2개만 찾아 쓰시오.

### <보기>

비유와 상징은 보조 관념을 활용하여 어떠한 사물, 사상, 개념 따위의 속성이나 특징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다. 비유는 보조 관념과 원관념이 모두 표면에 나타나지만, 상징은 원관념 없이 보조 관념만 표면에 나타나는 형태이다. 상징은 하나의 보조 관념이 하나 이상의 의미와 연결되어 다양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유와 다르다. 또한 상징은 비유와 달리 보조 관념과 원관념 사이에 뚜렷한 공통점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

## 예시 답안

정답

자갈, 잣나무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문항 6

###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통증은 생체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조직의 손상이 있을 때 발생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이다. 통증은 몸의 이상을 알려 주고 자동적으로 그 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감각적 반응이지만 통증이 작용하는 데 개인의 감정이나 기억, 문화적 배경과 같은 정서적인 요소들도 포함된다.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발생 원인이나 형태는 다양하지만, 크게 ‘체성 통증’, ‘내장 통증’, ‘신경병성 통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신경 전달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은 알려진 바가 적지만, 체성 통증과 내장 통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다.

체성 통증은 근육이나 피부 등에 자극이 있을 때 느껴지는 통증으로, 통증 부위의 자극이 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통증의 발생 부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부에는 온도나 압력 등의 여러 감각 신호를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런 감각 수용체들은 적정 범위의 자극일 때에는 감각으로 인식하지만 적정 범위를 넘어선 강한 자극은 통증으로 인식한다.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닿은 부분에 통증을 느끼지만, 손을 떼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체성 통증은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이 사라지면 통증도 사라진다. 그런데 상처가 생겨 조직이 손상되었거나 감염이 되었을 경우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통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내장 통증은 소화 기관이나 심장, 간 등과 같은 내부 장기에 관련된 통증으로, 통증의 발생 부위를 알기 어렵다. 그 이유는 내장 기관들 중에는 감각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거의 없는 부위가 있으며,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중추 신경계인 척수에는 내장 통증 정보를 처리하는 별도의 신경 세포가 없기 때문이다. 내장 통증은 피부의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세포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내장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가령 협심증과 같은 심장병에 의한 통증은 팔 근육통이나 손의 저림, 목 부위의 뻣근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러한 통증을 연관통이라고 한다.

통증을 통해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지만, 통증 그 자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통증의 완화를 위한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통증을 일으키거나 완화하는 물질들을 발견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프로스타글란딘과 엔도르핀이다. 통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생길 경우 우리 몸은 세포막의 일부를 분해해 통증 신호 물질의 원료가 되는 아라키돈산을 만들어 낸다. 아라키돈산이 변형된 사이클로옥시제네이스(COX) 효소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통증과 발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엔도르핀은 몸 안에서 생기는 모르핀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마약 성분인 모르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다. 엔도르핀은 모르핀의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어, 강한 통증 자극이 가해질 때 통증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통증을 완화한다.

6. <보기>는 제시문을 이해한 내용이다. ㉠~㉥ 중에서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2가지를 고르고 제시문에 있는 표현으로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 <보기>

- 통증은 몸의 이상을 알려주는 감각적 반응이며 통증이 작용하는 데 정서적 요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 근육이나 피부 등에 느껴지는 통증은, 해당 부위의 조직이 손상 혹은 감염되지 않았을 경우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이 사라졌을 때 통증도 ㉡사라진다.
- 감각 수용체가 없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부위가 어디인지 ㉢알기 어렵다.
- 내장 통증은 피부의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세포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연관통이 느껴질 수 있다.
- 통증 완화를 위한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발견해낸 물질들 중 프로스타글란딘은 통증을 ㉤차단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   |             |
|---|-------------|
| ① | 일치하지 않는 부분: |
|   | 수정한 내용:     |
| ② | 일치하지 않는 부분: |
|   | 수정한 내용:     |

## ■ 예시 답안

### 정답

- ① ㉠ 포함된다
- ② ㉢ 일으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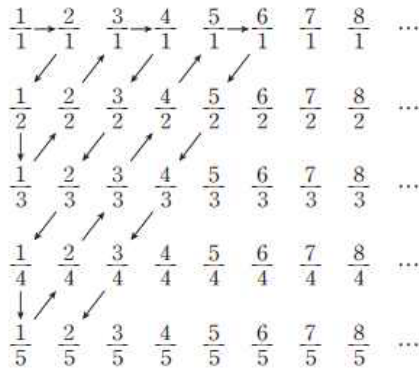
##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항 7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말의 수학자 칸토어에 의해 이루어졌다. 칸토어는 집합을 바탕으로 무한에 대해 생각하였고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집합의 원소 수인 ‘기수’를 제시하였다. 칸토어는 두 집합 A, B가 일대일 대응이 되면 집합 A, B는 같은 기수를 가지며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고 하였다. 가령,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이 있을 때 짝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며 자연수의 집합은 짝수의 집합보다 두 배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자연수를 그 자연수에 2를 곱한 숫자와 짝을 지으면 두 집합의 모든 원소는 일대일로 대응한다. 1은 2와, 2는 4와, 3은 6과 짝이 지어지는 식이다. 이러한 대응이 무한히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두 집합은 일대일로 대응한다. 따라서 두 집합의 기수는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

칸토어는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도 기수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임의의 두 유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리수  $a$ 와  $b$ 의 사이에는 또 다른 유리수  $\frac{a+b}{2}$ 가 있고,  $\frac{a+b}{2}$ 와  $b$ 사이에는  $\frac{\frac{a+b}{2}+b}{2}$ 가 존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a$ 와  $b$  사이의 유리수를 얼마든지 계속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질을 조밀성이라고 한다. 자연수는 조밀성이 없고,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칸토어는 ㉠대각화 증명을 통해 두 집합이 일대일로 대응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림 1>에서 첫 번째 행은 1을 분모로 하는 분수로 자연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n$ 번째 행은  $n$ 을 분모로 하는 분수가 나열된다. 이후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하나씩 세면서  $1/1$ ,  $2/2$ ,  $3/3$  등 동일한 수를 제거하면 모든 양의 유리수를 셀 수 있게 되고, 유리수의 배열에 자연수를 1부터 하나씩 대응시키면 자연수와 양의 유리수는 일대일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리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과 기수가 같은 것이다.

$$\begin{aligned} r_1 &= 0.a_{11}a_{12}a_{13}a_{14}a_{15} \cdots \\ r_2 &= 0.a_{21}a_{22}a_{23}a_{24}a_{25} \cdots \\ r_3 &= 0.a_{31}a_{32}a_{33}a_{34}a_{35} \cdots \\ r_4 &= 0.a_{41}a_{42}a_{43}a_{44}a_{45} \cdots \\ r_5 &= 0.a_{51}a_{52}a_{53}a_{54}a_{55} \cdots \end{aligned}$$

〈그림 2〉

칸토어는 ㉡대각선 논법을 통해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과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무한 소수로 나타내고 이를 <그림 2>와 같이 일일이 나열한다고 하자.

<그림 2>의 첫 번째 무한 소수  $r_1$ 의 소수 첫째 자리  $a_{11}$ 을 다른 숫자로 바꾸어 새로운 소수의 첫째 자리에 두고, 두 번째 무한 소수  $r_2$ 의 소수 둘째 자리  $a_{22}$ 를 다른 숫자로 바꾸어 새로운 소수의 둘째 자리에 두는 식으로 새로운 무한 소수를 만들면 원래의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무한 소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 계속해서 다른 무한 소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실수는 조밀성을 보이지만 자연수와 일대일 대응은 되지 않으며,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보다 기수가 크기 때문에 실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집합이나 유리수의 집합보다 더 큰 무한인 것이다.

7. <보기>의 ㉠~㉤을 제시문의 ㉠과 ㉡에 해당하는 것들로 분류하시오.

<보기>

- ㉠ 유리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 간의 일대일 대응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다.
- ㉡ 자연수의 집합이 유리수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만 두 집합의 크기가 같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 ㉢ 나열한 실수를 바탕으로 원래의 목록에 없던 새로운 무한 소수를 찾는 방법을 활용한다.
- ㉣ 새로운 유리수를 찾더라도 유리수의 집합이 자연수의 집합과 기수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원래의 목록에 없던 새로운 무한 소수를 찾으면 자연수의 집합과 기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① | ㉠: |
| ② | ㉡: |

■ 예시 답안

정답

- ① ㉠: ㉠, ㉡, ㉣
- ② ㉡: ㉢, ㉤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2025학년도 모의논술

## 문항 1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공공재란 공원이나 경찰 등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재는 주로 국가에서 공급하는데,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니거나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려면 배제성과 경합성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배제성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배제성의 존재 여부가 다르다. 한편 경합성이란 어떤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빵을 사고 싶은 사람은 두 명인데 빵이 한 개라면 한 사람은 빵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빵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며, 공중파 방송은 누군가 시청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시청할 수 있으므로 경합성이 없는 서비스이다. 이처럼 재화나 서비스에 따라 경합성의 존재 여부가 다르다.

재화나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 자원, 공공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사적 재화는 돈을 내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것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음식, 자동차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로 클럽재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것으로 상수도 서비스가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로 공유 자원은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것으로서 강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자연 자원이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재가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다고 해서 공공재 생산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도 비용을 들여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산된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배제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현상을 무임승차 문제라고 한다.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을 경우,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고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지 않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공공재는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 및 공급하게 된다.

1.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A~C에 들어갈 사례를 바르게 연결하시오.

<보기>

| 경합성<br>배제성 | 있음  | 없음 |
|------------|-----|----|
|            | 있음  | 없음 |
| 있음         | A   | B  |
| 없음         | 사례2 | C  |

<사례1>

어떤 주택에 세입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

<사례2>

스마트폰을 통해 유료로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하고 있다.

<사례3>

자리가 50석밖에 없는 무료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아침 일찍 줄을 서고 있다.

<사례4>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하여 공항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충전 기기에서 충전을 하고 있다.

|   |  |
|---|--|
| A |  |
| B |  |
| C |  |

■ 예시 답안

정답

A는 사례1, B는 사례3, C는 사례4

풀이

<사례1>은 어떤 주택에 세입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있다.

<사례2>는 스마트폰을 통해 유료로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하고 있는 것은 돈을 내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유료이므로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은 없다.

<사례3>은 자리가 50석밖에 없는 무료 도서관이므로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다.

<사례4>는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하여 공항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충전 기기이므로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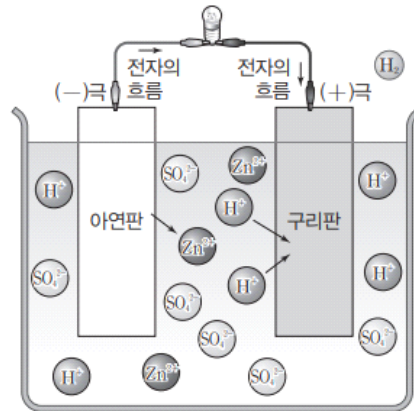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문항 2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학 전지란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건전지는 화학 전지의 한 종류이다. 건전지를 사용할 때 양극과 음극을 올바르게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 이는 화학 전지의 전극은 전자를 얻는 환원이 일어나는 쪽이 양극, 전자를 잃는 산화가 일어나는 쪽이 음극이며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림〉

화학 전지의 양극과 음극은 전극을 구성하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따라 결정된다. 이온화 경향이란 금속이 용액 속에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를 뜻한다. 따라서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해질 용액에 쉽게 녹아서 양이온이 된다. 위 <그림>과 같이 묶은 황산( $\text{H}_2\text{SO}_4$ ) 수용액에 구리판과 아연판을 넣어 전극으로 삼으면 화학 전지가 된다. 아연은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연판 표면의 아연 원자는 양이온이 되고 아연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들은 도선을 따라 구리판으로 이동한다.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므로 구리판이 양극, 아연판이 음극이 된다. 만약 아연판을 은판으로 바꾸고, 황산 용액을 염화 나트륨 수용액으로 바꾼 후 구리판과 은판을 도선으로 연결하면, 구리판이 음극이 되고 은판이 양극이 된다. 이는 구리가 은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학 전지에서 양극과 음극은 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반응열의 크기로 비교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금속에서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 수화(水化) 이온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많은 금속 원자들이 결합된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다. 금속은 주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데 금속 원자 하나가 결정에서 떨어져 나와야 개별 이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해질 용액에 담겨 있는 아연 금속( $\text{Zn}$ )에서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오고, 이 아연 금속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아연 이온( $\text{Zn}^{2+}$ )이 된다. 이 반응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아연 금속에서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이후 아연 이온은 전해질 용액 안에서 수화된다. 이 반응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서 반응열은 일정한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의 양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반응열로 이온화 경향을 비교할 때에는 흡열 반응에서의 열과 발열 반응에서의 열을 합한 값으로 비교한다. 반응열은 부호를 붙여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의 열은 양으로,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의 열은 음으로 표시한다.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반응열의 값이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발열 반응에서의 열의 크기, 흡열 반응에서의 열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온화 경향의 크기를 기준으로 금속 원소를 나열한 것을 이온화 서열이라고 한다. 이온화 서열을 보면 화학 전지에서 어떤 금속이 양극이 되고 어떤 금속이 음극이 될지를 쉽게 알 수 있다.

2.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④ 중,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2가지를 찾아 올바르게 수정하십시오.

<보 기>

- 화학 전지의 전극은 전자를 얻는 환원이 일어나는 쪽이 ① 음극이다.
-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② 반대이다.
-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③ 이온화 서열로 결정이 된다.
- 반응열은 ④ 흡열 반응에서 열과 발열 반응에서의 열을 합한 값이다.

|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는 번호 | 올바르게 수정한 내용 |
|-----------------|-------------|
|                 |             |
|                 |             |

## ■ 예시 답안

### 정답

① 양극, ③ 반응열

### 풀이

화학 전지의 전극은 전자를 얻는 환원이 일어나는 쪽이 양극, 전자를 잃는 산화가 일어나는 쪽이 음극이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반응열의 크기로 비교할 수 있으므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반응열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문항 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 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빨발 때문이었다  
 빨발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꿇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위(無爲)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포구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빨발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 문정희, ‘울포의 기억’ -

[문항 3] 민수가 위 작품을 읽은 후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을 때, ㉠~㉡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쓰시오.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제재 : 어머니와 빨발에 갔던 기억
- 핵심 내용
  - 이 작품에서 화자는 노동하는 이들을 숭고하게 여겨 (㉠)에 비유하고 있다.
  - ‘푸른 물’과 대조되는 시어인 (㉡)은 아름답지는 않지만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다.

|   |  |
|---|--|
| ㉠ |  |
| ㉡ |  |

### 예시 답안

#### 정답

㉠ 성자    ㉡ (검은) 빨발

#### 해설

이 작품에서는 어머니와 빨발에 가서 겪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은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자처럼 빨발에 고개를 숙이고’에서는 힘겹게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성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푸른 물’은 소금기가 많은 공간으로 생명의 공간이 아니지만, ‘검은 빨발’은 생명체들이 꿈틀거리는 공간으로 생명의 공간이며,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문항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4] <보기1>을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보기2>에 정리하였다. 빈 칸에 알맞은 음운 변동 유형을 적어 넣으시오.

### <보기1>

국어의 음운 변동 유형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교체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예) 꽃[꼴]
- 탈락 :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예) 앞[암:]
- 첨가 :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   예) 맨입[맨닙]
- 축약 :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예) 입학[이팍]

음운 변동이 단어 내에서 한 번만 일어나기도 하고, 한 유형의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 <보기2>

- ‘늦여름[느녀름]’은 (㉠) 및 (㉡)이/가 일어났다.
- ‘답하고[다카고]’는 (㉢) 및 (㉣)이/가 일어났다.
- ‘붙임[부침]’은 교체가 (㉤)번 일어났다.

\* ㉠~㉣은 단어 안에서 변동이 발생하는 순서와 상관없이, 해당하는 유형을 쓰면 됨.

\* ㉤에는 아라비아 숫자(1, 2, 3 등)가 아닌 우리말 세는 단위(한, 두, 세 등)를 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시 답안

### 정답

|   |    |                   |
|---|----|-------------------|
| ㉠ | 교체 | ㉠과 ㉡의 순서가 바뀌어도 정답 |
| ㉡ | 첨가 |                   |
| ㉢ | 탈락 | ㉢과 ㉣의 순서가 바뀌어도 정답 |
| ㉣ | 축약 |                   |
| ㉤ | 한  |                   |

### 해설

- ‘늦여름[느녀름]’은 교체(음절끝소리규칙, 비음화) 및 첨가(‘ㄴ’첨가)가 일어났다.
- ‘답하고[다카고]’는 탈락(자음군단순화) 및 축약(격음화)이 일어났다.
- ‘붙임[부침]’은 교체(구개음화)가 한 번 일어났다.

## 채점 기준

※ 대학에서 이 문항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AI 논술 자동 첨삭

#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 이용 안내

|       |                 |
|-------|-----------------|
| 무료 체험 |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
| 개인 플랜 | 월 9,900원        |
| 교사 플랜 | 월 29,900원       |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